AZ31 Mg합금 판재의 표면처리 지속성에 대한 화성처리의 영향 Surface treatment durability for conversion coated on AZ31 Mg alloy sheets

서장현^{*},김혜정,박영희 포항산업과학연구원 (seojh8506@rist.re.kr)

초록: 마그네슘 합금판재 사용을 위한 표면처리 중 화성처리는 합금판재 표면에 화학적 반응을 유도하여 산화막 또는 무기염 형태의 얇은 피막을 형성시켜 표면 물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본 발표에서는 화성처리된 AZ31 마그네슘 합금 판재의 표면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하고 그결과를 소개하였다.

1.서론

마그네슘 합금의 상용화를 위해 합금판재 표면의 내식성, 내염수성, 전착도장성 등의 물성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여러 표면처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화성처리는 액체상태의 화합물을 판재표면에 접촉시켜 화학적 반응을 유도하여 판재 표면에 산화막, 무기염 형태의 얇은 피막을 형성 시켜표면 물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현재 마그네슘 합금판재의 주 표면처리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2.본론

화성처리된 AZ31 마그네슘판재 샘플을 종류별로 확보하여 표면 처리(화성처리)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해 항온항습기를 이용하여 85%RH,85℃ 분위기에서 120시간 노출 (8585시험) 시키고 시험 전 후의 표면 외관과 색상변화를 관찰하였다.

3.결론

유, 무기물 화성처리 용액의 종류와 화성처리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대체로 유기물 화성처리 후의 판재는 8585 시험 후에 흑점이, 무기물 화성처리 판재는 8585시험 후 전체적으로 흑화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크로메이트 화성처리 판재 경우에는 8585시험 전 후의 표면상태 변화가 없었다.

참고문헌

1. T. Ishizaki, I. Shigematsu, N. Saito, Surface & Coatings Tech., 203 (2009) 2288

감사의 글

본 논문은 지식경제부의 WPM (World Premier Materials) 사업을 수행하는 수송기기용 초경량 Mg 소재 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